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FA-50 경공격기 비행을 마친 후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 “항공분야 7대 강국 역량 구축”

“2030년 초까지”... 문 대통령, 서울 ADEX 축사

“방산, 추격에서 선도자로... 게임체인저 개발 선제 투자 강한 국방력, 언제나 평화 목표... 스마트 강군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참석 연설에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ADEX에 참석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17일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 의지를 통해 제품의 해외수출 활로 모색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다. 지금 세계 방산시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유인·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 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강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릴 것”이라며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며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기반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며 “또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 하루를 앞두고 있

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며 “우주 분야 민간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의 지원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력을 약속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시회 5일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방위역량의 진면목을 보시기 바란다”며 “항공우주의 꿈, 자주국방의 자부심, 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 일상회복 정책 수립 시 지역 공동체 역할 강화

송하진 도지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으로 위촉

송하진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20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위 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전철철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외 분과위 위원은 비대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자치안전 과제 발굴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과 자치안전 분과 과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송 도사는 17개 시도를 대표해 중앙-지방 협력 촉진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송하진 도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의료진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라며 “정책 수립시 타당한 방식

회복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송하진 도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의료진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라며 “정책 수립시 타당한 방식

이 아닌, 지역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도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17개 시·도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지역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이다.

국무총리와 민간대표(최재천 이화여대대학교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면으로 등 4개 분과로 나눠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팔복동에 이어 서학동으로 ‘Go Go’

조지훈 전 경진원장, 예술마을 찾아 활성화 방안 논의

전주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서학동 일대를 누비며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예술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지훈은 팔복동에 위치한 서학동 일대를 방문하여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예술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는 전주시를 방문한 첫 번째 방문이다. 그는 서학동을 내걸고 시작한 전주 누비기에 따른 것으로 전주경제 심장인 팔복동에 이은 세 번째 행보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9일 전주시 서학동 배리에서 이형로 서학동 예술마을 초대 총장을 비롯해 김지운 소설가, 임용욱 시인, 신세자·배현주 화가, 백광훈 사진가, 김형태 공연연출자, 한승현·이정훈·마은정 문화기획자, 이선영 공방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야트막 등을 리모델링해 예술인 및 예술인 은퇴자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뒤, 안정적으로 수인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함목소리를 냈다.

또, 예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공공화 사업을 가속화하고, 예술인 스퀘어 코스 등을 마련하여 예술인들을 해설사로 활용하



전주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서학동 일대를 누비며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예술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는 동시에 전주 문화·예술의 가치를 적극 홍보해 관광으로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치병자산과 예술마을, 다가산을 엮어 종교·예술 문화벨트를 구축해 전주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귀담아들은 조 전 원장은 “전주는 예로부터 예술을 알고 행하는 고장, 즉 예향의 도시다. 그렇기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다”며 “이를 잘 정비하고 엮어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주시 서학동은 전주를 15분 도시로 진화하고자 구상한 5개 권역 가운데 ‘도심지구, 문화예술관광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인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시키도록 더욱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주요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전주 구석구석을 누비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오징어게임에 내몰린 지방, 기회 균형 필요”

김수홍 의원, 기재부 종합감사서 “미국기회특구 모델 병행 필요”

대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충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균형이 깨졌다”고 진단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홍 의원은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는 지방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내용은 현실이 투영된 것처럼 답답하다고 지방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방은 생명을 건 국헌의 경쟁에 내몰린 것과 같다”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8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한 것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홍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은 산업, 금융 교육, 일자리 주거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가 있다”며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의 기회특구 모델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이자 민간자본의 투자기회가 되는 상생의 모델”이라며 “정부 주도의 균형정책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홍 의원은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포명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김부’를 맺고 잘 살아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에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가 있다”며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의 기회특구 모델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이자 민간자본의 투자기회가 되는 상생의 모델”이라며 “정부 주도의 균형정책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홍 의원은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포명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김부’를 맺고 잘 살아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은 산업, 금융 교육, 일자리 주거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가 있다”며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은 산업, 금융 교육, 일자리 주거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군민에게 힘이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 고창군의의회